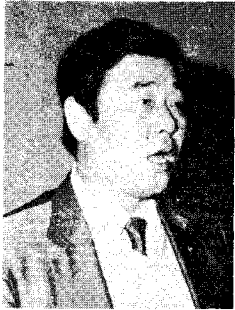


# 대한양계협회 소식

## 전국부화인 대회 및 방역세미나 개최

양계기반 조사사업 활성화 위해

- 전국 부화인의 능동적 참여로 성공적 효과기대 -



(이 상운 회장)



(서 기상 담당관)



(박 근식 박사)



(황 인욱 전문)

본회는 농수산부의 후원을 얻어 양계산업 기반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주, 대전, 부산에서 각각 전국부화인 대회 및 방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83축산진흥사업계획에 의거 부회장의 실태 및 초생추 출하상황을 월 1회 이상 부회장에 직접 출상조사해 정확한 통계를 산출, 양계업 기반조사를 실시하여 양계산업의 조기안정화를 꾀한다는 목적하에 본협회에 이관된 양계산업 기반조사사업은 본 대회에 전국의 211개 부회장 관계자와 전국의 시군 축산담당관 전원이 참석하는 열의로 사업의 중요성과 안정된 양계산업

발전을 희망하는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했다.

2월 23일(수) 오후 2시 전주 대륙예식장에는 전북, 전남, 제주지역의 부화인들 35명이, 24일(목)의 대전 시민회관 소강당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지역의 부화인 128명, 25일(금) 부산 온천예식장에서 개최된 영남지역 대회에는 부산, 대구, 경·남북 부화인 48명이 모여 기반조사사업의 사업개요와 협조요망사항을 청취, 스스로의 업을 보호받기 위해 능동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임덕성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속개된 이번 대회에

# 全国 孵化人大會 및 防疫 세미나

社団法人 大韓養鷄協會



△ 안정된 양계산업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모은 부화인들의 열의 속에 개최된 전국 부화인 대회

서 이상윤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연중 가격진폭이 커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그동안 자율적인 생산조절과 부화업 허가제 등으로 안정을 꾀하였으나 통계자료의 불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했기에 양계인의 숙원사업인 양계업 기반 조사를 위해 축산진흥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본 협회에서 맡기로 됐다」고 밝히고 부화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화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수산부 서기상 담당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부화인 스스로를 위한 중요한 이번 사업이 잘 수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통계조사원의 사명감에 의해 정확한 통계 집계로 양계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급 조절에 기여해 안정된 양계산업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본회 황인옥전무는 사업개요설명과 협조요망사항을 전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양계협회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히 밝히고 이번 조사사업이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설명과 부화인의 적극적인 협조없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기에 모든 부화인의 협조를 재삼 강조했다.

참가한 부화인들을 위한 중계방역세미나에서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박근식박사는 「부화위생과 중계위생관리를 통한 닭질병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난계대전염병, 부화위생, 각종 전염성질병, 중계의 종합백신프로그램 등에 대해 슬라이드를 통해 상세히 강의를 펴나갔다.

한편 이번 중계방역세미나를 위해서는 4개 백신메이커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제 2 차 회장단회의 개최

금년도 제 2 회 회장단회의를 지난 2월 17일 (목) 오전 11시 본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월 4일 1차회의시 매월 정기적으로 회장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본회 이상윤희회장을 위시해 신흥

중부회장, 고태영부회장과 전무, 국장 등 집행부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 1 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와 양계협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회장단 회의는 매월 첫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되어있다.

## 83년도 제 1 차 이사회 개최 - 2 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



△본회 제 1 차 이사회

금년도 본회 제 1 차 이사회가 지난 2월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임덕성사무국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개최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에 이어 이상윤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중한 토의를 통해 양계업의 계속적인 발전과 나아갈 바를 밝혀야 할것」을 당부하고 협회의 활성화는 모든 양계인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임원의 노력을 부탁했다.

전 회의록검토에 이어 황인옥 전무는 △각종 대내외 회의 및 행사개최, 간행물 발간, 지도조사 방역대책, 검정사업, 육계·채란·감별 분과사업, 행정사항 등 사업실적, △대정부 건의사항 △직원인사 △기타 사항에 대해 업무를 보고했

다.

부의안건심의에서는 △신가입 및 제명대상회원 승인 △용인분회가입 승인 △'82예 산집행결산심의 △'83 제 1 차 추경예산(안)심의 △'83 특별회계 승인 △인사, 직제, 급여, 여비, 회비징수, 해외여행 추천기준 등 제규정 개정(안)심의 △회비조정(안) 심의 △자문 및 전문위원 위촉 △기타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 (8명) : 오봉국, 오세정, 류종래, 이계조, 차두홍, 허신행, 박영인, 박근식

◇전문위원 (26명) :

- 검정위원 : 오봉국, 오세정, 박근식, 정선부, 김춘수, 박상문
- 편집위원 : 김순재, 김영환, 김정인, 노광순, 송기홍, 신정일, 신정재, 임병규, 장경국, 지규만, 하낙순
- 방역대책위원 : 박근식, 이원기, 민덕기, 장민기, 이태섭, 이영상, 이희구, 김선중, 조성남

## 닭고기유통 대책방안 건의

-서울시에 수매비축, 소비홍보, 도계장 증설 등 -

본 협회는 지난 3월 3일 닭고기유통개선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밀도계(생계유통)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자 상행위의 위촉으로 닭고기 유통이 원활치 못하게 되었으며 최근 1주일간 육계가격이 30%이상 하락하고 있어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또 출하일령이 지나서도 닭을 출하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이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저물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미루어 그 대책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지 아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대책방안을 건의했다.

○생계유통을 강력히 단속할 경우 육계가 생산농장에서 체화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유통이 잘 안될 것으로 예상되니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적정가격(경영비수준)으로 수매, 도제처리, 공급, 비축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

○과거는 일정기간 단속하면 행정력의 한계로 단속이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있어 수년간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으니 금후 도계유통이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줄 것.

(위 항의 대책없이 강력히 단속할 경우 상당기간 유통이 마비되고 가격폭락, 생산가격, 생산자 불만 등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아직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도계품을 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도계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TV, 라디오, 신문 등) 소비자 스스로가 도계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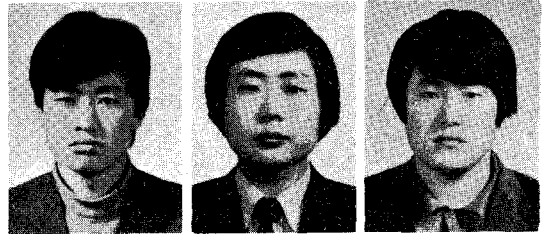
○현재 도계장 시설의 불비로 도계과정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도계장 증설과 함께 시설 근대화에 특별지원을 해주도록 조치하여 줄 것.

○밀도계 단속은 위생적인 도계유통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닭고기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육계산업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줄 것.

## 본회 인사

본회는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부화장 실패 및 초생추 출하상황조사를 통한 양계산업 기반조사사업을 위해 2월 17일부터 4명의 조사요원을 지도조사부 조사과에 특채하고, 편집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2월 14일부터 편집국요원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은 다음과 같다.



(강재명)

(정희철)

(송재성)

강재명(영남대학교 축산학과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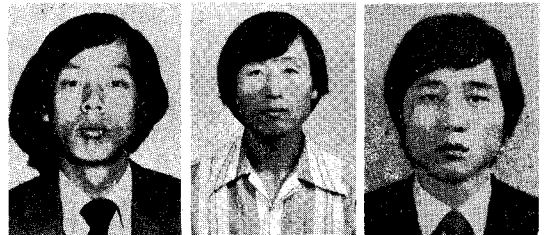
정희철(전북대학교 축산학과 졸)

송재성(대전실업전문대 축산과 졸)

전영배(대전실업전문대 축산과 졸)

김재덕(고려대학교 축산과 졸)

민병호(연암축산전문대 축산과 졸)



(전영배)

(김재덕)

(민병호)

한편 본회 편집국의 연재희씨는 개인 사업차 지난 2월 17일 사직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해 재건의

- 3개 축산생산자단체의 공동명의로 -

본 협회는 지난 3월 2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인하를 청화대 민원실을 통하여 대통령각하에게 건의했다.

이는 지난 달 본 협회 등 축산생산자단체(양돈협회, 낙농비육협회)가 공동명의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과태료 인하를 건설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지난달 본지 147, 148페이지 참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본 협회를 위시한 생산자단체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코자 취해진 것이다.

이번에 올린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의서

대통령 각하

정의사회구현과 선진조국건설에 주력하시는 각하의 노고에 대하여 전국의 양축인들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축산발전을 위하여 안보차원에서 각종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영세하여 대부분 간이 축사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주시어 대부분의 양축가들이 양성화의 혜택을 받는다는 기쁨에서 처음에는 크게 환영을 하였으나 막상 양성화하려고 하니 과태료가 건물신축비에 맞먹도록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양축가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을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신고마감일인 83. 3. 31일 이후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징역을 살아야 되

고 무허가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오랜동안의 불황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회복단계에 있으며 양계산업은 지난 3년간 극심한 불황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사료값 외상 등) 대부분의 축산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거액의 과태료를 내고 축사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건설부의 회신대로 법의 집행을 강행할 경우에는 축산물수급에도 차질을 빚어 정부의 저물가정책에도 어긋나며 부족한 축산물의 수입도 불가피하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비 기준으로 보면 일반 호텔이 평당 200만원이라면 축사의 건축비는 그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우사의 경우 평당 5만원~20만원, 돈사의 경우 5만원~15만원, 계사의 경우 3만원~5만원 정도이므로 가중치에 있어서도 호텔 1의 20분의 1인 0.05정도로 하향조정하여 주시고 기왕에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시고, 신고기간도 83년 3월 31일까지는 기간이 촉박함으로 83년 9월 30일 까지로 연기하여 정부의 당초목적도 달성하고 양축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여 값싸게 고급단백질식품을 생산하여 국민체위향상과 물가안정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물론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체력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옵니다.

끝으로 150만 축산농가와 그 가족들은 각하의 영도하에 선진조국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각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83. 3.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이상운  
 " 대한양돈협회장 전동용  
 " 한국낙농비육협회장 황영구

## 제 1 차 감별분과위원회 개최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는 지난 2월 5일(토)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 1 차 감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열린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도 감별분과위원회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감별사 자격시험 개최 △해외감별사 파견 △초생추 자웅 감별사 지위향상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 채란업계 현황 경제부처에 설명

### - 본회, 계란가격 고시 잡음 증재도 -

지난 2월 13일 구정을 앞두고 계란가격문제에 대해 서울 경기 양계협동조합(수석이사 강희구)과 양계업계 일각에서 계란가격고시 등으로 잡음이 있어 양계업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 지난 2월 8일 본회 황인옥전무의 주선으로 채란분과위원 3명과 서울 경기 양계협동조합 강 수석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일시적인 오해를 풀고, 이후 상호협조체제로 유대를 강화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월초 특란가격이 일시 60원 이상을 상회하자 경제부처에서 비상한 관심을 표명해 본회에서는 경제기획원 물가당국에 지난 3년동안 산란계 사육수수, 사료값 앙등, 계란가격등을 제시 불황속에서 일시적인 다량구매로 잠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내용의 채란양계업의 현황설명을 제시해 물가담당관계관들을 설득한 바 있다.

## 부천분회 정기총회 개최

### - 신입회장에 이수옥씨 선출 -

본회 부천분회는 지난 2월 7일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분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82년도 결산보고 및 임원선출을 하였다.

장민기 분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82년도 결산보고 내용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장민기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유임을 극구 사양하자 이수옥회원이 추천되었으며, 참가회원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5명의 전형위원을 선임하여 임원선출을 논의하였다.

이날 선출된 신입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분회장 : 이수옥

○부분회장 : 천삼기, 김종억, 박문규

○감 사 : 박문규, 원용필

○이사 : 박덕신, 이종명, 김진택

○총 무 : 원중훈

## 경북지부 정기총회 개최



본회 경북지부(지부장 박규병)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 시 지부회의실에서 6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83지부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회원 50명과 신규가입회원 1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1982년도 결산보고, 1983년도 예산(안) 승인, 지부사업계획(안) 승인에 이어 지부 임원선출이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규병지부장(봉춘농장대표)을 유임시키고 채란분과위원장에 권정일씨(근일농장 대표, 유임), 육계분과위원장에 김월식씨(경산농장 대표, 유임), 부화분과위원장에 김재곤씨(대성부화장 대표, 신임), 감별분과위원장에 천성기씨(감별학원원장, 신임)를 각각 선출하고 감사에는 권용기씨(신임)와 석영수씨(신임)를 각각 선임했다.